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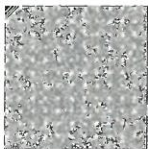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84호

2022년 3월 6일(다해)

사순 제1주일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91(90),15,16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1독서 | 신명 26,4-10

화답송 | 시편 91(90),1-2,10-11,12-13,14-15(© 15L 참조)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 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 행여 네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

밟으리라. ◎

○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

제2독서 | 로마 10,8-13

복음환호송 |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 루카 4,1-13

영성체송 | 마태 4,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 광야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호사다마(好事多魔)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악마가 다가와 방해 공작을 편 것입니다.

먼저 악마는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요구합니다. 물질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라는 유혹입니다. '하느님은 모세의 백성에게 빵을 내려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지 않았던가? 메시아라면 백성에게 먹을 빵과 살 땅을 보장해 줘야 하지 않는가?' 의식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빵이 절대화되고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생각, 경제 제일주의의 유혹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신명 8,3)

이어서 악마는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막강한 세상 권력과 눈부신 영화로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으라는 유혹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 번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던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라면 마땅히 그런 권세와 영화를 갖춰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세속 권력과 영화를 절대시하면 반드시 큰 폐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신명 6,13 참조)

마지막으로 악마는 성경까지 유혹의 도구로 삼습니다, 시편 91편 11절-12절에서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의인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합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빌려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입증하여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유혹입니다. '엘리아 예언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함으로써 참된 하느님을 드러냈듯이(1열왕 18,20-40), 메시아도 그래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내 명예와 이익을 위해 하느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신앙을 거스르는 짓입니다.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느님을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 뜻과 욕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마라."(신명 6,16 참조)

우리 인생 여정에는 광야처럼 힘든 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느님보다는 재물과 권력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나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하느님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몸소 유혹을 당하고 극복하셨던 그분은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유혹의 목소리를 떨쳐버리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제2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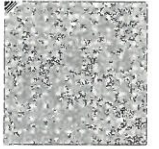
몽골리아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로마 10,8)**

말씀이 곧 저희의 길입니다. 저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을 두 발도 주셨으니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길을 같이 걷고 싶습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홍찬미 글로리아 | 싱어송라이터

| 사랑하는 봄

찬바람 사이로 봄이 조금씩 깃들기 시작하는 3월입니다. 사랑하는 봄이 오고 있나 봅니다.

요즘 저는 봄과 함께 찾아오는 것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서강대학교의 성이나시오관에는 커다란 자두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는데, 나무는 매년 봄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을 드리웁니다. 연둣빛 잎사귀가 돌아난 가지에 푸릇푸릇한 잎이 한가득 피어났다가 이내 새하얀 꽃잎들로 뒤덮이는 그 모습이 매년 얼마나 ‘새롭게’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이맘때는 퇴근하기 전에 꼭 창문을 조금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달콤한 자두꽃 향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올봄에도 자두나무가 꽃을 틔우겠지요? 이 밖에도 세상엔 온갖 풀들이며 봄꽃들이 가득 피어날 테고 아마 저의 자두나무와 같은 존재가 다른 분들에게도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에게 봄을 가득 실어 올 겁니다.

“그럼에도 계절은 멋진 풍경이 되고
그 바람에 내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작년 봄에 발매된 제 1집 음반의 수록곡 ‘풍경’의 한 구절입니다. 가사를 썼던 건 그보다도 1년여 전의 일이었는데, 어느 날엔가 출근길에 무심코 머리 위를 올려다보았다가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지나치던 자두나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온통 새하얀 봄이 되어 그날따라 펄펄 훝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저더러 이제 그만 차갑고 건조한 겨울로부터 걸어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지요.

서너 해 전, 교목처에 처음 왔을 때의 저는 이전처럼 노래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을 많이 다친 상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계속해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피난처가 되어준 교목처에서의 첫해가 끝나갈 무렵

엔 제 안에 사랑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나무가 홀로 겨울에서 봄으로 옮겨가듯, 저를 어루만지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저에게도 어느새 무수한 ‘봄’이 피어나 있었다는 것을 그 새하얗게 훝날리던 봄날의 자두나무 앞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 봄에 저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메마른 겨울 동안 참고 참았던 것을 다 쏟아내기라도 할 것처럼, 비로소 새로운 노래를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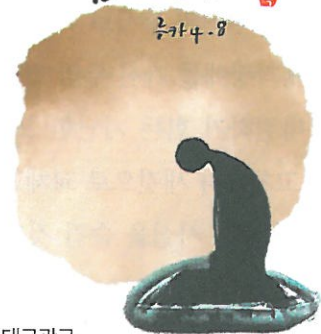
하루하루 바빠 지내다가도 이따금 고개를 들어보면 우리 주위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의 약함을 지금 당장 어찌할 수 없애도, 그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서서’ 그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조금은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린 창으로 바람이 넘나들고, 저 멀리까지 향기를 전하기도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니, 이 봄에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어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계신 하느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힘껏 맡겨보는 겁니다.

한컷 묵상

주님의하느님께
경배하곤 그분만을
사랑하니

2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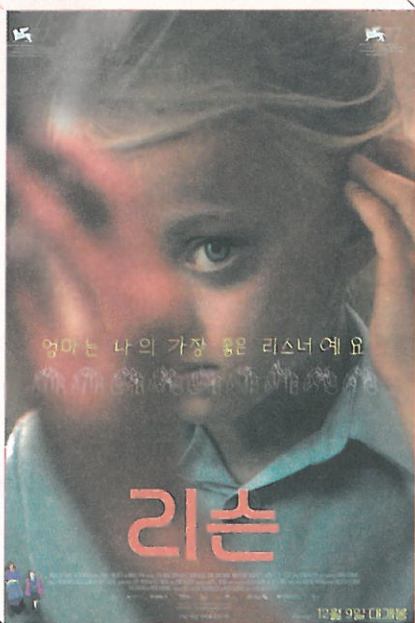
류상애 아베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영화 '리스'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2012년 감독: 아나 콜사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도 합니다. 선의를 내세운 원칙에만 집착해 열린 마음과 섬세한 눈을 가지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최재희(1914~1984)도 **"사람을 위해서 제도가 있는 것이지, 제도 자체에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흔아홉 명을 구원하고, 겨우 한 사람만 놓치거나 잃어버릴 정도라면 모두 좋은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는 그 제도가 잔인함과 절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실업급여제도가 한 늙은 노동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아 버리는 것을 <나, 다니엘 블레이크>(켄 로치 감독)에서 봤습니다. (2021년 1월 24일 자 영화칼럼)

<리스>의 벨라(루시아 모니즈 분)에게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더 좋은 가정에서 자라도록 해준다는 영국의 강제입양제도가 그렇습니다. 해당 제도는 남편 니콜라오와 열한 살 된 아들 디에구, 여섯 살 된 딸 루, 12개월 된 아기 제시와 함께 사는 그녀의 가족을 무자비하게 강제해체시킵니다. 그것도 어처구니없는 오해와 편견과 무시로.

발단은 청각장애를 가진 루의 고장 난 보청기입니다. 끼니조차 마련하기 힘든 가난한 포르투갈 이민자에게는 그것을 고치거나 새것으로 교체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복지국은 그 사실을 숨긴 것과 아이의 등에서 발견된 멍을 아동학대로 보고 긴급보호명령을 발동해 세 아이를 강제로 데려갑니다. 니콜라오와 벨라와 아이들

이 "난 좋은 엄마, 우리 좋은 가족이다." "아이들에게 손 한번 댄 적 없다." "우리 엄마가 돌본다." "부모님과 집에 있고 싶다."고 절규하고, 애원하고, 반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의 면회시간에도 복지국 직원들은 규정을 고집하면서 영어로만 말하기를 강요하고, 보고 싶었다는 말도 못 하게 하고, 벨라와 루의 유일한 소통수단인 수어(手語)를 하는 것도 막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빼앗기고 멀쩡할 엄마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벨라의 분노와 불안, 절망과 슬픔을 우울증으로 규정하고 그런 엄마는 위험하다며 아이들과의 면회까지 막아버립니다. 강제입양은 아동보호라는 제도의 정당성을 앞세워 양육수당까지 주면서 디에구와 제시를 다시는 친부모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입양을 보냅니다. 그나마 루만 가까스로 부모 품으로 돌아옵니다. 정부가 청각 장애아를 입양할 가정을 찾지 못하데다, 등에 있던 멍이 자색반병의 출혈 자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벨라는 "루에게는 저희보다 나은 부모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루에게는 엄마가 최고의 '리스너(Listener)'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사랑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라는 벨라의 말이 아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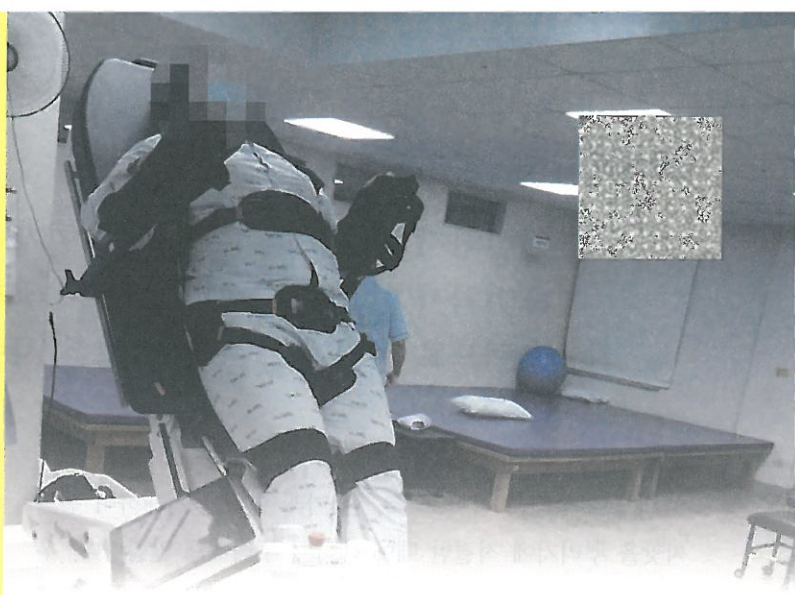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작은 양도 찾아서 함께 하려는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벨라 가족의 비극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마태 18,14)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치료비 지원 사업

**민준이의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선생님, 민준이가 기절했어요.”

또래보다 큰 키와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촉망받던 배구 특기생 민준이(가명, 남, 19세). 2016년 1월 중학생이던 민준이는 배구부 동계 훈련 중 머리를 부딪쳤고,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 즉각적인 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지러움과 두통, 구토 증상이 점점 심해져 계속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고 3개월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 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민준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뇌 병변 장애 1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준이의 사고 이후 가족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영구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민준이와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지난 6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단 이후 바로 재활 치료를 시작했지만 민준이는 아직 혼자 앉지도, 서지도 못합니다. 독립적인 활동이 어렵다 보니 신체 내부 장기들에도 영향을 줘서 최근에는 척추측만증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인 민준이네는 엄마가 민준이를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해 아이의 병원비, 생계비, 대출이자 등의 수급과 같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준이네의 수입은 기초 생활 수급비 등 정부 보조금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대출을 받아 버텼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민준이는 키 192cm, 체중 140kg으로 체격이 커 건장한 성인 남성도 돌보기 힘든 상태이지만 엄마는 홀로 6년째 민준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민준이 엄마도 오래 전부터 뇌혈관 협착증 질환이 있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금은 민준이 치료비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어 본인의 치료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랜 병원 생활로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여 수술이 시급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통증을 악착같이 참아낼 뿐입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에 낯선 병원에서의 생활을 힘들어했던 민준이. 그래도 지금은 주위 여러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이 회복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향후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지, 아직은 캄캄한 어둠 속이지만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오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민준이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행복한 나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간절하게 청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민준이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총 지원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인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치료비 지원 사업’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2년 3월 5일-4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민준님(가명)'을 위해 쓰여집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http://obos.or.kr)-한마음한몸소식-본부소식’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갈라 6,9-10)**

① 씨 뿌리기와 수확

바로 성인은 기회(kairós), 곧 미래 수확을 기대하며 선의 씨앗을 뿌리기에 적절한 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적절한 때’란 무엇입니까? 사순 시기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초대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소유가 아니라 내어줌에서, 축적이 아니라 선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나누는 일에서 발견하도록 합니다.

처음으로 씨를 뿌리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크나큰 관대함으로 “계속해서 인류에게 좋은 씨를 뿌려 주십니다.”(『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54항)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살아 있고 힘이 있는”(히브 4,12)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선물에 응답하라고 요청받습니다.

수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수확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뿌린 선의 첫 열매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소소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선의를 위하여 씨를 뿌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애로운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선의 씨앗이 지닌 숨겨진 힘에 대한 희망으로, 다른 이들이 수확할 열매들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일입니다.”(『모든 형제들』, 196항)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고 드높여 줍니다. 우리 삶과 행동의 무르익은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요한 4,36)이고, ‘하늘의 보물’(루카 12,33; 18,22 참조)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다주시는 위대한 빛입니다.

②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시대에 구원의 씨앗을 심으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위대한 희망”으로 지상의 희망에 생기를 줍니다.(『희망으로 구원된 우리』[Spe Salvi], 3항, 7항 참조)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갑니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이사 40,31)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루카 18,1)고 가르치

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필요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은 위험한 망상입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우리 개인과 사회의 연합함을 더욱 인식시켜 주었다면, 이번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하느님 믿음에서 오는 위안을 체감하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 삶의 악을 뿌리 뽑읍시다.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육신의 단식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을 강인하게 해 주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지치는 법 없이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참회와 화해의 성사 안에서 용서를 청합시다.¹⁾ 낙심하지 말고 계속 탐욕에 맞서 싸웁시다.

우리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애덕으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행을 합시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2코린 9,10)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십니다.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을 실천합시다.

③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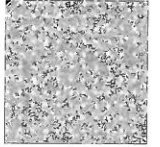
참고 전디는 농부의 마음을 달라고(야고 5,7 참조), 선행을 베푸는 데에 인내하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꾸준히 청합시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악의 유혹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너 그러이 용서하시는”(이사 55,7)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이 회개의 때에 하느님 은총과 교회의 친교에 힘입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단식은 토양을 마련하고 기도는 물을 대며 자선은 비옥하게 만듭니다. 모든 이를 향한 형제애를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2코린 5,14-15 참조)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고, 하늘 나라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그때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1코린 15,28)이 되실 때입니다.

구세주를 태중에 품으시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 곰곰이 되새기신”(루카 2,19)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은총을 얻어주시기를 청합시다.

프란치스코



1) 프란치스코, 2013년 3월 17일 삼중 기도 연설 참조.



“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지금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
(2코린 5:20; 6:2)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이어지면서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느님의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거나 혹은 경제적 궁핍함을 겪거나, 혹은 소중한 꿈들을 접어야 하는 절절한 아픔과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새롭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전 지구적 환경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더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년여 전에 지구상 어딘가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수억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상황을 겪으면서,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함을 우리 모두는 단단히 배우고 있습니다.

술 지구 공동체적 대응과 병행해서 함께 가야 할 사실 하나는, ‘모두’와 ‘각자’는 사실 다른 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있기에, 우리 ‘각자’가 존립할 수 있고, 우리 ‘각자’가 있어 ‘모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모두’를 새롭게 하기 위해, ‘각자’ 하느님 앞에 진실되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낳

은 아픔과 상실들 속에 하느님은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 속에 말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방향 잃고 헤매는 청년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향해 많은 것을 이루어왔던 지난 시간들이 우리 손을 떠나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 말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순 시기, 이제는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 하느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당신 아드님을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죽음에 부치시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덧붙여 3월 9일은 우리가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정치가는 사랑의 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는 분을 새 대통령으로 보내주시기를 주님께 청합시다.

이 사순 시기, 십자가 위의 아드님 예수를 통해 하느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다시 느껴보십시오.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이웃 안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지금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2코린 6:2)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정순택

사순 시기

사순은 본래 '40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재를 지켰고, 엘리야 예언자도 호렙산에 갈 때 40일을 걸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신자들은 참회와 희생, 극기, 회개와 기도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 대축일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29년 3월 12일 강도영 마르코 신부(66세)
- 1944년 3월 9일 이보환 요셉 신부(51세)
- 2013년 3월 12일 이계중 세례자요한 신부(91세)
- 2016년 3월 7일 김병일 요셉 신부(82세)

서울주노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교구청일람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향심기도 2박3일 심화과정

때: 3월25일(금) 17시~27일(일) 16시
곳: 폰벤티알 피정의집(한남동)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10만원
지도: 이승구 신부 / 문의: 010-4565-8898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미들의 복된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08차 미사 3월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진남포 본당, 중화본당 / 문의: 02)727-2420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신켄마 이콘전: 1전시실
김해숙 칠보전: 2전시실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작가 김하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3월9일(수)~21일(월)

수도자 성체 분배 직무 교육

대상: 서울대교구 성체 분배 직무가 필요한 교구 내 수도자 / 회비: 1만원(3월16일 마감)
방식: 기간 내 자유롭게 온라인 교육 수강(2시간 소요)
때, 곳: 3월17일(목)~23일(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접수 후 신청서 송부 /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 청소년들의 모임 가톨릭학생회 회원 모집

자녀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바라시나요? 자녀가 성당에 나왔으면 하시나요? 가톨릭학생회에 초대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신앙 활동을 원하시나요? 주체적인 신앙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응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톨릭학생회에 가입하세요
대상: 가톨릭 신자 청소년(14세~18세)
곳: 가톨릭청소년회관(혜화동)
활동: 정기적인 학생 모임 및 다양한 체험 활동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2022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31

청년 Hello 기도 2022	삶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월피정 때, 곳: 3월8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 화관 소성당 / 대상: 청년 누구나
------------------	--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3월12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마스크 미착용시 입실불가

'슬픔 속 희망찾기' 웰레미사 및 모임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일 세번째(토) 3월19일 10시30분
곳: 명동대성당 옆 영성센터 경당(상설교회소 건물)
문의: 02)318-3079

3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주요 개념 이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동영상 강의 제공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병원사목위원회 온라인 유튜브 미사

내용: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서 미사가 봉헌됩니다
때: 매주(금) 오후 3시(실시간 미사)
미사지향 신청: camillus.seoul@gmail.com
유튜브 검색 → '서울대교구 병원사목위원회'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or.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선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라는 고유한 역할 수행을 돕고, 노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를 개설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5~7세의 손자녀를 둔 조부모, 120명
교육일시: 4월4일 · 11일 · 25일, 5월2일 · 9일, 16일 · 23일 · 30일 (월) 오전 10시~12시30분(총 8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교육내용: MBTI 검사와 작업, 손자녀 발달 이해와 공감, 자존감 키우기, 전해줄 신앙 이야기, 죽음 준비, 노후재정과 건강한 노년
회비: 9만원(MBTI 검사비 포함)
입금계좌: 우리 1005-201-140646 (제)천주교서울대교구
신청기간: 3월21일(월)까지 접수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https://senior.catholic.or.kr>)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 02)727-2385, 2386 노인사목팀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모집

한국스카우트 · 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 서울지구연합회
대원: 서울대교구 본당 주일학교 학생(6세~18세)
지도자: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성인
유의사항: 본당 사제 허가 필수(지도자는 면담 필요)
문의: 02)762-9857(화~토 8시~17시)
부재 시 이메일 문의: seoulscout@catholic.or.kr

생명위원회 참생명학교 · 웰레미사 · 희망으로 가는 길

생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orlife.or.kr>) 참조
1) 새 삶을 향한 참생명학교 기초과정 4기
때: 4월11일~5월30일 매주(월) 19시30분(총 8주 강의)
강의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회비: 5만원(교재 포함, 교구장님 명의 수수료증 발급)
모집인원: 30명(선착순 마감)
신청 및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2) 3월 생명을 위한 웰레미사
때, 곳: 3월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3) 희망으로 가는 길(택사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3월8일 13시30분~16시30분 매일 두번째(화)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3월7일(월)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3층 강당(명동)
3월14일(월)	오전 10시30분, 길음동성당(동서울)
3월21일(월)	오전 10시30분, 광장동성당(동서울)
3월28일(월)	오전 10시30분, 양천성당(서서울)

제40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온라인 교육

대상: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공부하고 활동할 신자, 수도자, 성직자 / 방법: 온라인(Zoom으로 진행), 강의, 나눔, 과제(녹화영상 강의 시청 등)
때: 3월22일(화)~5월3일(화) 19시30분~21시(총 7회)
신청방법: 3월10일(목)까지 구글폼 신청서 링크 주소(<https://bit.ly/3sO2KDX>)로 접속하여 제출 필수(선착순 50명)
회비: 1인당 5만원 / 문의: 02)727-2283, 2272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일정	주제	녹화영상	실시간 강의
3월22일	오리엔테이션, 회칙 '찬미받으소서' 5대 문, LS1장(생태위기에 관한 과학·기술 및 생명)	조천호 박사	백종연 신부
3월29일	LS2장(창조질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백종연 신부	백종연 신부
4월5일	LS3장, LS4장(생태 정의와 사회 정의)		조현철 신부
4월12일	LS5장(기후위기와 교회의 연대)		강승수 신부
4월19일	LS6장(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	문준숙 수녀	조경자 수녀
4월26일	LS6장(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 안내)	김연지 박사	손혜숙 위원
5월3일	생태 문명으로서의 전환, 수로미사	이재돈 신부	이재돈 신부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3월1일~31일까지 / 문의: 010-8874-7970

삼성산 피정의 집 치유 대피정 / 문의: 02)874-6346
 때, 곳: 3월12일(토) 13시~17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주최: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국악성가연구소 해외 성지순례 / 문의: 02)558-2004
 때: 5월9일~23일(14박15일) / 인솔: 강수근 신부
 곳: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메주고리에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 문의: 02)990-1004
 때, 곳: 3월25일~27일·4월22일~24일(2박3일), 명상의 집(우이동) / 개인 피정(수시) 별도 문의

사순시기 걷기 참가단 모집
 스마트폰 내려놓고 기도하며 걷기-하루 6천보
 때: 3월2일(수)~4월17일(일) / 대상: 누구나
 사순시기 매일 6천보 이상 걸으신 분들 중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 문의(접수): 010-3262-6823
 천주교 스마트섬 문화운동본부(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네이버카페: 천주교스마트섬문화운동본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성경 완독	3월11일(금)~19일(토), 4월1일(금)~9일(토)	곳: 도미니코 피정의집(주최, 황성)
말씀 피정	4월28일(목)~5월1일(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피정	3월19일~21일, 4월18일~20일
성지순례 피정	3월12일~15일, 3월26일~29일, 4월2일~5일, 4월9일~12일, 4월23일~26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0차	3월18일(금)~26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01차	4월22일(금)~30일(토)	
제102차	5월20일(금)~28일(토)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4월30일(토)~5월1일(일), 6월11일(토)~12일(일)
3박4일	3월24일(목)~27일(일), 4월7일(목)~10일(일)
8박9일	3월11일(금)~19일(토), 4월20일(수)~28일(목)
40일	3월10일(목)~4월18일(월), 9월14일(수)~10월23일(일)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3월13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호스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3월11일~14일·3월25일~28일·4월8일~11일·5월20일~23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매일 둘째주(토) 3월12일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1)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내용: 미사·강의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3월7일(월) 오전 10시~12시, 가톨릭회관 7층
 2) 평화의 모후 청년셀 모임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7510-4820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분장
 때: 3월17일~19일, 3월30일~4월1일, 4월4일~6일, 4월10일~12일, 4월19일~21일, 4월24일~26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사반주를 위한 오르간 교육(대치2동 오르간아카데미)
 곳: 대치2동성당 / 문의: 010-9468-7660

성음악 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교육
 때: 매주(금) 14시~16시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가톨릭 다도회 불학기 회원 모집
 내용: 다례와 인성 예절 교육
 때, 곳: 3월14일~6월13일 매주(월) 14시~16시, 교육장(인사동) / 문의: 010-6618-1313, 010-8912-2640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기간: 단기 1년 또는 장기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오르프'와 함께하는 쉼, 움직임(리듬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직장인(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3월15일~4월5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노들담 실천교리교육
 때: 3월21일·4월4일·4월25일·5월9일(월) 13시~16시30분
 곳: 노들담교육관(종로 복춘로)
 대상: 첫영성체, 예비자, 견진교리담당자 / 문의: 010-8829-6292(www.ndrpp.or.kr)

마리아 학교 온라인 수강자 모집
 내용: 구원역사 속의 성모님을 배우고 알아가기
 때: 3월28일 개강, 매주(월) 14시~16시(6개월)
 문의: 010-9620-4820 서울 마리아학교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 1단계·청년반 개강
 때: 4월26일(화) 14시·4월27일(수) 19시·4월26일(화)~청년 저녁반 / 회비: 7만원
 수강문의: 02)753-8765, 010-8931-8765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추가접수: 3월31일(목)까지 우편접수 가능

'예담영성' 기초 과정
 곳: 가톨릭회관 202호 / 주1회·12주·1시간30분 교육
 문의(접수): 02)472-3217(www.물이솟는샘.org / www.wellingspring.org) 가톨릭영성아카데미 물이솟는샘

1. 나의 하느님	3월14일(월) 10시30분	홍성만 신부
	3월16일(수) 19시	주수욱 신부

예수회센터 온라인 동영상 녹화 강의(3월 개강)
 현장 강의 녹화, 일주일 후 동영상 링크 발송, 일주일 동안 수강 / 이 밖의 다양한 강좌는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이미지를 통한 신비 탐구(신설)	홍기령 교수
가톨릭 사회교리	전주희 수사
구역영성아카데미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들-시편	주원준 박사
영신수련 정기 강좌-영신수련과 성서	임숙희 박사
가톨릭 신앙과 영성	예수회 사제 외

바오로딸 헤하나무 아카데미 현장 및 온라인 강좌
 문의(접수): 010-9759-0882 / 회비: 각 강좌당 15만원
 온라인: 네이버 밴드 실시간 시청(이후 수시 시청 가능)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3월5일~4월23일 매주(토) 15시(8주간)	박은호 신부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	3월8일~4월26일 매주(화) 19시(8주간)	전영준 신부
성숙한 신앙과 리더십을 위한 철학산책	4월7일~6월9일 매주(목) 19시(8주간)	김이균 신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묵오신학강좌 트랙 I (한국CLC)
 때: 3월17일~4월28일 매주(목) 19시30분(6주)
 곳: 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회비: 8만원(대면·비대면) / 문의(접수): 02)333-9898

3월17일	하느님 나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송용민 신부
3월24일	하느님의 다스림을 생장하는 체험 이야기	주원준 박사
3월31일	예수님께 하느님 나라를 묻다	김학철 박사
4월7일	'이미'와 '아직'사이	한민택 신부
4월21일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	박동호 신부
4월28일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	현재우 박사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3월~12월 /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 고등과정(16세~24세) / 문의: 02)833-0930
 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바
 리스타, 제과제빵,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곳: 돈보스코 미디어스쿨(양천구 신월3동)
 홈페이지: <http://db-mediaschool.kr>

가톨릭대학교 2022년 학점은행제 수강 모집

학점은행제: 가톨릭신학(영성신학·구약성서입문·
 기초신학·라틴어 등), 심리학전공(발달심리·상담심
 리학·성격심리학·심리학개론 등)
 곳: 가톨릭대학교 / 문의: 02)2164-6587 성심·성의
 개강: 3월21일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특강

주제: 가톨릭 사상사(교회의 대사회적 가르침-교황문
 헌을 중심으로) / 강사: 한홍순(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때, 곳: 3월11일~6월10일 매주(금) 15시40분~16시
 40분(총13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내 명례방(B1)
 회비: 회차당 1만원(후원회원 30%할인) /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사무실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검정고시 및 수능준비, 자기계발(뮤지컬·목
 공, 수영·영상·사진·독서토론·영어대화·컴활 등)
 자원봉사자: 검정고시, 수능 학습지도 가능하신 분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문화공간JU역촌동

미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3월7일(월)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3월12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인사

카타리나 피정집 / 문의: 010-9715-1203
 곳: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 개인, 취사가능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 심리·가족갈등
 전화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전문심리치료: 갈등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
 (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 문의: 010-5604-1882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w.jjscen.or.kr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자기인식 작업-수지메니어
 그림: 매월 셋째주(금)·(토) 오전 10시~오후 4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상설 무료 상담
 내용: 성프란치스코CPE센터와 연계된 무료 상담
 상담 분야: 영성심리,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가족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등 / 문의(상담 예약):
 02)6364-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무실
 첫 상담 후 내담자의 선택에 의해 회기 상담에
 들어갈 경우 소정의 상담료가 있습니다

(월)	10시~17시	(화~목)	10시~12시
첫 금요일(화상 상담)	13시~17시	(토)	13시~15시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co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상처입은 마음치유와 자아 및 관계 회복	3월19일~4월30일 매주(토) 14시~17시(7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강박행동 등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가톨릭회관 501호
개인 상담	정서 및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및 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교육	미술심리치료상담사 자격과정-3월14일~4월11일(월) 10시~15시(5주), 모래놀이상담사 자격과정-3월19일~4월2일(토) 10시~13시(3주)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직원 모집 / 문의: 02)382-5652
 인원: 계약직 0명(2년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업무: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및 회계 등
 근무부서: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은평구 역촌동)
 서류: 굿뉴스 JU역촌동 구인공고 게시글 참조
 3월17일(목)까지 이메일(ju@juu.or.kr) 및 방문 접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사업기획 및 영어능통자, 아시아 지역학·국제 교류 관련 전공자 우대 / 이메일 문의
 분야: 사무행정 담당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및 면접, 2차 최종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3월20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신대방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분야: 계약직 방호원 1명 / 문의: 02)825-2314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교우
 업무: 방호관리, 미화관리, 시설관리 등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3월15일(화)까지 방문 및 우편(우 0706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11길 14 신대방동성당) 접수(서류는 당일 도착분까지)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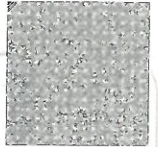
모집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스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9세~12세 가톨릭 신자 남아
 문의: 010-5514-3002 자모회장

무지카사크라스서울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고음악을 중심으로 연주하고 있는 무지카사크라스
 서울합창단에서 창단40주년기념(2024년) 수도권
 순례와 유림순회 연주를 기획하며 신입단원(남
 녀 만50세 이하)을 모집합니다 / 담당: 이상철 신부
 지휘자: 정지윤 / 문의: 010-6369-0367 박경영 단장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	010-2140-7414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마리아의 종 수녀회	3월13일(일)	분원(돈암동)	010-6826-6882
성심수녀회	3월19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채현주 수녀
예수성심전교수녀회·수도회	3월13일(일) 14시~18시	재속회관(역촌동)	010-3241-3107
예수회	수시	한국관구 성소실	010-6357-0731(vocation.jesuit.kr)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3월19일(토) 14시30분	수도원(성북동)	010-6608-1968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한국 천주교
교리 교육 지침(개정판)**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136쪽 | 5천원
문의: 02)460-7582

2005년에 펴낸 '한국 천주교회 교리 교육 지침'을 15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와 생명 과학의 발달, 환경 위기를 비롯하여,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새로운 일상 등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의 상황에서 그에 맞맞은 새로운 교리 교육의 필요에 따라 마련되었다.



신간
**길 진리 생명
해설 성경
예언서 편**

안소근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832쪽 | 3만2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길, 진리, 생명의 해설은 교의적, 성서학적, 전례적 해설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진리, 성서학적 해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영성적, 신학적 해설), 어떻게 하느님과 일치할 것인가(생명, 전례적 해설)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의 성서 독법을 제공한다.



신간
역주 사학징의 II

조광 역주
순교자현양위원회 | 480쪽 | 2만5천원
문의: 02)2269-0413

역주 사학징의는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서울 형조에서 신문을 받거나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한 이들에 대한 기록이다. 정부기관에서 주고받은 각종 지시와 보고 및 형조에서 발송했던 공문서와 접수한 공문서, 천주교 사건으로 인한 사형죄인 관계 문서철과 각종 사학죄인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간
**시노달리타스-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최현순 지음
바오로딸 | 200쪽 | 9천원
문의: 02)944-0944

시노달리타스를 명쾌하게 설명한 가이드북이다. 우리가 지금 시노달리타스에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용어가 교회에서 지닌 위치나 의미, 시노달리타스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징하게 설명한다. 교회에서 만나는 오해들을 예시하고 해결 방안도 차근차근 제시한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cpbc TV 프로그램 안내

윤원진 신부의 다윗 이야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평가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까지 수십 년간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느님께 한결같은 믿음과 희망을 두고

시련을 이겨내며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묵상하고, 그의 모범에 따라 시련에 맞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는 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송시간 | 수 17시 30분, 목 7시 30분, 토 14시, 월 10시 30분, 수 4시

일상 안에서의 빛의 여정

영신수련이란 그리스도교적 주요 원리를 총괄한 실천적 수덕 신비 신학입니다. 이 영신수련을 통하여, 올바른 그리스도교적 인생관을 파악하게 하여 죄악을 인식하고 통회하며 자기를 극복한 다음,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신수련을 처음 듣거나 어렵게만 생각하셨던 신자들을 위해, 예수회 정구평(마르코) 신부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첫 방송 | 3월 14일(월) 9시 40분 • 방송시간 | 월-토 9시 40분, 22시 10분

제2219(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본당 시노드 소모임

(구역·반, 레지오, 단체, 개인)

시노드를 위한 본당 소그룹별 모임을 통해 교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출일자 : 3월 20(주일)까지. 본당 사무실 참고할 사이트 주소 : www.synod.or.kr

◎ 성체조배 안내

곧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만큼이나 영적 목마름도 깊어지고 있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소 : 대성전

시간 : 매 주 목요일 10시 미사 후

◎ 3월 9일(수) 10시미사 없습니다.

◎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4일(금)~4월 8일(금)

매 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 4월 15일(금) 오후 3시

◎ 청년 십자가의 길

일시 : 3월 6일(주일)~3월 13일(주일)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 후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3월 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유아세례 : 3월 6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주일학교 개학미사

-초등부 : 3월 5일(토) 오후 3시

-반디/중고등부 : 3월 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성소후원회 미사 : 3월 15일(화) 오전 10시

◎ 주일학교 등록제

대상 :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반디2지구(장애아부)

등록비 : 10,000원

문의 : 초등부 교감 (010-5377-8909)

중고등부 교감 (010-2517-3614)

반디 교감 (010-5091-1509)

◎ 2022년도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반 모집

대상 :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첫모임 : 3월 5일(토) 어린이 미사 후 / 304호

접수 방법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문의 : 대표봉사자 (010-2561-4773)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2. 2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85	640 (30.7%)	563 (27.0%)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익명삼십만원 홍선호칠만원

누계17,888,400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조영원 카타리나 상가삼십만원

◎ 감사헌금 (2월 21일~27일)

익명삼십만원 민진화이십만원

이형재일십만원 정수진칠만원

이재림이만원 이현중일십만원

손은자일십만원 이미경일백만원

김춘강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8주일)

교무금11,371,000원

주일헌금4,134,2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1,813,000원